1강 사회철학의 태동

<사회철학>

1. 사회철학이란 무엇인가?

1.1 사회철학은 사회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다.

◇ 사회적인 것들이 인간의 내면을 움직인다.

◇ 투명한 의식에 반대되는 불투명한 의식 : 다윈, 프로이트, 맑스

◇ 우리나라의 사회철학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 앞선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1.2 불편한 것들에 대한 테마

◇ 뒤르깽『자살론』

→ 자살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 불편한 것들에 대한 테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서울의 복판 이곳저곳에서 뛰어난 근대적 '데파트멘트'의 출현은 1931년도의 대경성의 주름잡힌 얼굴 위에 가장하고 나타난 '근대'의 '메이크업'이 아니고 무엇이랴. (…) 밤하늘을 채색하는 찬란한 '일루미네이션'의 인목을 현혹케 하는 변화 -수백의 눈을 거리로 향하여 버리고 있는 들창.- 거대한 5, 6층 빌딩 체구 속을 혈관과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레베이터', 옥상을 장식한 인공적 정원의 침엽수가 발산하는 희박한 산소-. 그리고 둥그런 얼굴을 가진 다람쥐와 같이 민첩한 식당의 '웨이트레스'와 자극적인 음료와 강한 '케이크' 냄새-. 최저가로 아니 때때로는 무료로 얼마든지 제공하는 여점원들의 복숭아빛의 감촉-. 이것들은 '센시블'한 도시인의 마음에로 향하여 버려진 '데파트멘트'의 말초신경이다. 일찍이 '에밀 베르아랭'은 불란서의 심장 '파리'를 촉수를 가진 도회라고 노래하였다. 그런데 '데파트'야말로 무형의 촉수를 도시의 가정에 버리고 있는 마물(魔物)이다. (…) 난간에 비껴서서 층층대를 올라가는 미끈한 여자의 비단양말에 싸인 다리와 높은 '에나멜'의 구두 뒤축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서있는 수신교과서를 잃어버린 중등교원도 있다. 그들은 인제는 교외의 절간으로 나가는 대신에 일요일의 맑은 아침이 되면 그들의 어린 'W'와 젊은 '제비'와 애인을 끌고 이 '데파트멘트'의 질소를 호흡하러 꿀벌과 같이 모여들어서는 그들의 얕은 호주머니를 털어놓고는 돌아간다. 어제까지는 설렁탕의 비린 냄새를 들이키던 그 사람도 오늘은 음악가 지원의 여자와 같이 정자옥 식당의 찬 대리석 '테블'에 마주 앉아서 '캘리포니아'산의 '커피'차를 쭉쭉 빨고 있다.『김기림전집6』「도시풍경1·2」(조선일보 1931.2.21)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